


입 사 지 원 서

| | | | |
|------|-------|------|--------|
| 지원분야 | 웹퍼블리셔 | 희망연봉 | 회사내규따름 |
|------|-------|------|--------|

□ 인적사항

| | | | | |
|---|---------|-------------------------|---------|-----------------------|
|  | 이 름 | 박 수 현 | 영 문 | su hyun Park |
| | 생 년 월 일 | 1994 년 7 월 11 일 (27 세) | | |
| | 휴대전화 | 010-9462-9321 | e -mail | shtncjf69@hanmail.net |
|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 |

□ 병역사항 (해당자 기재)

| | | | | | |
|-------|----|-------|-------|------|-------------------------|
| 군필 여부 | 군필 | 군별/병과 | 육군/공병 | 복무기간 | 2017 년 7 월 ~ 2019 년 4 월 |
|-------|----|-------|-------|------|-------------------------|

□ 학력사항

| 재학기간 | 학교명 | 전공 | 학점 | 구분 |
|-------------------|------------|-----------|----|----|
| 2010.03 ~ 2013.02 | 경주 공업 고등학교 | 환경 화학 공업과 | | 졸업 |

□ 교육 및 연수사항 (해외연수포함)

| 기간 | 교육과정 | 교육기관 | 교육내용 |
|-----------------|--------------------|--------------|---|
| 2019.12~2020~06 | 스마트플랫폼 웹 (UX/UI)개발 | 더조은 아이티 아카데미 |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툴 사용방법 교육 htm5 , css3 , java-script , jquery 교육 |

☐ 위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수현

□ 수행 프로젝트 (작성 여부 선택사항: 별도 작성된 포트폴리오가 있을 시, 첨부 가능)

| | |
|----------|---|
| 포트폴리오 주소 | http://parksuhyun9321.dotheme.co.kr/clapPortfolio/html/ |
|----------|---|

| | |
|-------------------|--|
| 프로젝트 명 | 개인 홈페이지 작업 |
| 수행기간 | 2020.12.08. ~ 2020.12.03 |
| 수행인원 | 1 명 (본인) |
| 프로젝트 목표/소개 | 나자신을 소개하고 퍼블리싱 역량을 보여주는 홈페이지 제작 |
| 개발환경 (사용도구/언어) | Visual Studio Code , Adobe photoshop/illustrator HTML5 CSS3 JAVASCRIPT JQUERY |

| | |
|---------------|--|
| 담당역할 | 홈페이지 디자인 기획 / 퍼블리싱 |
| 수행 결과물 | 교보북 스토리 퍼블리싱 100% HTML5,CSS3/SCSS/JAVASCRIPT |
| | 화면/기능설명: java script 만을 사용해 슬라이드, 메뉴창 구현, |
| | LIFEPLUS / JTBC 2020 서울마라톤 퍼블리싱 100% HTML5,CSS3/SCSS/JQUERY/PLUGIN |
| | 화면/기능설명: fullpage.js swiper.js 를 이용해 화면 구현, jquery 를 사용해 메뉴창 구현,cookie.js 로 쿠키데이터 생성 |
| | CONVERSE 퍼블리싱 100% HTML5,CSS3/SCSS/JQUERY |
| | 화면/기능설명: jquery 만을 사용해 메뉴창,게시물 나타내는 버튼 구현 |

자 기 소 개 서

| |
|---|
| 성장과정 |
| <p>중학교 1 학년이 끝나갈 무렵, 비보이라는 춤을 처음 시작한 후부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제 춤을 증명하려 노력했고, 여러 사람과 여러 인생을 접하며 저만의 주관과 개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1 살 여름 고향인 경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여러 아르바이트하며 춤을 추었고, 아르바이트하며 비보이가 아닌 사회인으로서, 성인으로서의 주관과 개성을 점차 가지게 되었고, 24 살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해 여러 사람과 즐겁게 일하는 법,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법, 윗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계속 비보잉을 했지만, 손목을 다쳐 4 개월가량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춤이 아닌 다른 분야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스마트 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고등학교 1~2 학년 시절, 사진을 찍는 것,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웹 디자이너인 친누나의 영향으로, 맘껏 개성을 발휘하는 춤에서 디자인으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누나의 영향으로 디자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에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을 알게 되었었고, 그곳에서 퍼블리싱이라는 것을 추천받으면서 또 다른 웹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웹 퍼블리싱을 배우며 비보잉과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비보잉 할 때 영감을 얻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듯이, 웹 퍼블리싱을 잘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보고, 정보를 찾아가며 웹 퍼블리싱 에 열정이 생겼고, 이 분야에서도 나는 분명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p> |
| 성격과 강점 |
| <p>저에겐 남들과는 다른 행동력이 있습니다. 또 그 행동을 완수해 내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는 비보이를 해오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활동을 했습니다. 몇몇은 혼자라서 "활동이 힘들다. 할 수 없다."라며 그만두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제 비보잉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움직여 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기술, 동작들은 갖은 노력을 거쳐 반드시 해내어 왔습니다. 아르바이트할 때는 주로 혼자서</p> |

하는 편의점,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였는데. 아무리 짧은 기간이더라도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한 저의 행동은윗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여럿이서 살아가는 사회지만 결국 잘 해내야 하는 건 나 자신이고 혼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때가 있었지만,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군 복무를 통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선임이 되고 나서는 팀워크를 중시했고 항상 후임들과 소통을 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며 팀워크를 다진 우리 소대의 모습 또한 상사들에게 좋은 모습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취미 , 특기

비보이를 하기 전 육상과 검도를 했습니다.

이때 했던 육상은 저의 취미가 되어 종종 시간이 있을 때 한강 둔치를 달리고 그곳에 있는 운동기구들로 운동하는 것을 즐깁니다. 또 많게는 20km, 평균적으로 1~2km 정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 실수를 복기하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감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보이를 하는 사람이라 break beat 을 좋아하지만, 또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어 감정이 풍부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색채를 수정하거나,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서점에 들러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TV 에서는 보지 못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드라마 소설, 저자의 생각이 담긴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좋아합니다.

직무 관련 경험

학원 수업 초반에는 선생님이 천천히한다 해도 못 따라가고 바로바로 하기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탑 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시간에 어려움이 많았고. 남들보다 두배는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수업 마치고나서 따로 한번 더 만들어보기도 하고, 구간마다 쓰인 태그를 이해하고 position 에 대해, float: left 를 썼을 때 높이 영역이 사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각종 CSS 기법들을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이탑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을 때는 혼자서 무리가 없이 깔끔하게 완성을 했을때 공부한 보람과 퍼블리싱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포부

개개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이 되면 팀워크를 중시하고 팀원들과 소통을 하는 팀장이, 팀원일 땐 한 프로젝트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웹 퍼블리셔는 사용자들에게 보이는 화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웹사이트란 웹사이트의 목적에 맞는 필요한 요소를 재료로 사용하여 직관적이며 빠르고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웹을 만들기 위해 멈춰있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웹 퍼블리셔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갖고 부족한 면을 채우며 귀사에 보탬이 되는 웹 퍼블리셔가 되겠습니다.